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조는 역대 임금 중 가장 책을 좋아하는 군주였다고 평가받는다. 통치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정조의 독서에서는 실용이 중시되었으며 정조에게 실용적인 책이란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그래서 옛날을 바탕으로 오늘을 비취 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며 역사서에 경전 버금가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소설은 실용에 무익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한다고 여겨 평생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정조는 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책의 형태와 책을 읽는 자세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소매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책과 누워서 편히 보도록 설계된 책상을 금하였다.

학문이 도덕과 인륜을 다스리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조는 하나의 틀에 매이는 독서를 사법(死法)으로 규정하여 멀리하였고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해 읽는 독서를 지향하였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성인의 뜻을 잘 헤아리되 무조건 따라 읽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독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별하여 심신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수레 다섯 대에 실을 분량의 책을 암송한다 한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며 자잘하고 세세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책에 담긴 뜻을 스스로 체득하여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기본자세라 보았다.

정조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강조했다. 읽어야 할 책의 내용과 분량을 매일 정해 놓는 것이 좋으며, 많은 책을 읽으려 하기보다 한 권이라도 반복해서 살펴보고 치밀하게 읽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단번에 전체를 모두 알려 하기보다 대요(大要)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책을 혼자서 읽으면 관념에만 머물 위험이 있으므로 토론을 통해 책에서 배운 지식이 타당한지를 돌아보고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정조는 책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삶에서도 실천하며 독서를 통해 자기 삶의 물음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얻어 나갔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한 정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한다.
- ②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의 형태와 책을 읽는 자세도 중요하다.
- ③ 읽어야 할 책의 내용과 분량을 매일 정해 놓고 읽는 것이 좋다.
- ④ 한 번을 읽어도 치밀하게 읽어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 없이 파악해야 한다.
- ⑤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배운 지식은 토론을 통해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논어』 한 권을 읽었는데, ㉠ 한 사람은 마치 자기 말처럼 다 외우지만 막상 어떤 경우에 닥치면 일찍이 생각이 책 속에 미치지 못하고 그 행동하는 바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읽은 것과는 반대로 한다. ㉡ 한 사람은 능히 한두 장도 외우지 못하지만,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하여 이렇게 말한다. “『논어』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니 화가 날 때 마음대로 하면 뒤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말이였다.” 하고는 참고 이를 가라앉혔다.

— 홍길주, 「수여방필」 —

- ① 경전을 ‘자기 말처럼 다 외’웠다는 점에서 ㉠은 상황에 따라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읽은 것과는 반대로 한’다는 점에서 ㉠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독서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능히 한두 장도 외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은 생활에 쓰일 수 없는 독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하였다는 점에서 ㉡은 책에 담긴 뜻을 심신으로 체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논어』 중에 한 구절’을 떠올리며 화를 ‘참고 이를 가라앉혔다’는 점에서 ㉡은 경전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조의 독서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하지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법을 익히게 해 주는 소설도 충분히 실용적인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정조는 소설을 부정적으로 보았는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을 찾아봐야겠어.

- ① 독서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읽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자신의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글의 생략된 부분에 보충할 내용을 찾고 있다.
- ④ 독서 과정에서 생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⑤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독서에서 접하게 된 용어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철학에서는 상상력을 무엇으로 여기며,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한 흄은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바라본 기존의 관점과 달리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기능으로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흄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인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한다. 인상은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이고, 관념은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겨나는 이미지이다. 여기서 흄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 보았다.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 것이다.

흄은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 상상력과 함께 ‘기억’을 제시한다. 기억과 상상력의 차이는 인상과 관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생생함의 정도에서 비롯되는데, 기억이 상상력보다 인상을 더욱 생생하게 재생한다. 그래서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보다 훨씬 생생하고, 강렬하다. 또한 기억이 최초 인상들을 받아들일 때와 동일한 순서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상상력은 순서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재생이 이루어진다.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받아들인 특정한 인상들에 대한 관념이지만,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각각의 인상들이 생긴 시간의 순서나 각 인상들의 공간적 배열까지도 원래 받아들일 때의 그것과는 다르게 재생된 관념인 것이다. 즉, 상상력은 기억과 달리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인상들로부터 만들어진 관념들을 자율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흄은 이러한 상상력의 자율성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본다. ‘관념 연합의 원리’, 즉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습득된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을 제시하면서, 상상력은 이러한 연합의 원리에 의해 관념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라 설명한다. 상상력이 관념들을 결합시킬 때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관념들끼리, 시공간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인과 관계에 있는 관념들끼리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흄에게 임의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한 환상에 불과하다.

또한 흄은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동일성이 상상력에 의하여 확보된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는 하늘이 밤사이에 소멸했다가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성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칸트는 흄과 달리 상상력을 선형적인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 능력은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이라는 4가지로 구분된다. ‘감성’은 대상에 의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을 오감(五感)을 통해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지성’은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말한다. ‘상상력’은 서로 이질적인 능력인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능력으로, 감성의 내용을 지성에, 지성의 내용을 감성에 전달한다. 상상력이 감성의 내

용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상상력에 의해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전달될 때 도식화가 일어난다.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감성, 상상력, 지성에 의해 축적된 수많은 지식들을 영혼이나 우주 또는 신이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화한다. 이처럼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어지는지 그 원리를 분석하면서 감성과 지성의 매개자인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상상력이 없다면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칸트는 상상력을 결합과 도식화의 측면에서 ㉠ ‘재생적 상상력’과 ㉡ ‘생산적 상상력’으로 구분한다. 재생적 상상력은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능력으로, 먼저 무질서하고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본 다음 훑어본 것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종합’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다른 시간들에서 경험한 것을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결합하게 한다. 가령 내가 사과를 보았을 때 오감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보고 모아서 그 사과를 하나의 상(像)으로 결합해 내는 경우는 재생적 상상력에 의해서 종합이 일어난 것이다.

생산적 상상력은 도식(Schema)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도식은 감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험 이전에 있으면서 그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선형적 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도식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나아가 생산적 상상력은 도식을 창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응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칸트는 흄이 경험적인 차원에서 연구하였던 상상력을 선형적인 차원에서 탐구함으로써 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바라보았던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 개념을 다른 개념과 비교하면서 두 개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 개념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개념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 개념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의 형성 배경과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5. (가)에서 알 수 있는 흄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 지닌 항상성 때문이다.
- ② 상상력이 만들어 낸 인상과 관념들은 자율적인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다.
- ③ 연합의 원리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하다.
- ④ 상상력보다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이 더욱 생생하다.
- ⑤ 상상력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이다.

6. (나)에 따라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었을 때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감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물리학, 천문학 분야의 수많은 지식들을 우주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화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어느 날 밤 갑자기 지붕을 내려치는 듯한 빗소리가 들렸을 때, 태풍이 가까이 와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귤, 감, 포도를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다양한 감각들을 지성으로 전달하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 그 후 과일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색, 크기, 모양 등의 다양한 감각들을 느끼는 것은 감성을 통해, 그 장미꽃이 빨간색이라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감각과 별개로 작용하는 능력이다.
- ② ㉠과 ㉡은 모두 경험의 수용과 인식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 ③ ㉠과 달리 ㉡은 감성과 이성을 이어 주는 매개적 기능을 한다.
- ④ ㉡과 달리 ㉠은 다양한 감각들을 결합하기 전에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⑤ ㉡과 달리 ㉠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선형적 형식을 만드는 능력이다.

8.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철학자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이미지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에 이미지를 재생해서 보존하는 상상력은 매우 중요하다.

㉡ 상상력은 인간의 정신 능력에서 놀라운 창조성을 지닌 능력으로, 인간이 이룩한 문화는 모두 상상력의 산물이다.

㉢ 상상력은 사물의 닮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다. 감각은 사물의 그림자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 인간의 모든 경험은 감각이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획득되고, 상상력은 인간의 모든 사고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상력의 기능을 배제한 인간의 인식 과정은 있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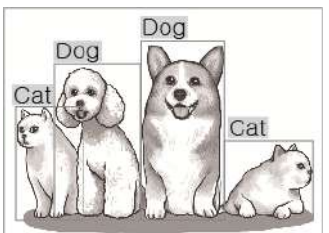
- ① 흄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이해한다는 ㉠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 ② 칸트는 상상력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파악한 ㉡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 ③ 칸트는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 판단한 ㉢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 ④ 흄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는 ㉣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 ⑤ 흄과 칸트는 모두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 상상력의 역할을 필수적이라고 파악한 ㉣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9.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리다.
- ② 요즘은 물가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
- ③ 게시판에서 옥설이 들어 있는 글을 내렸다.
- ④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곧장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 ⑤ 동치미 국물을 마시자 체증이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란 사람, 동물, 사물 등 이미지에 있는 여러 대상의 위치를 찾아 각 대상의 크기에 맞는 경계 상자를 표시하고,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경계 상자 안의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작업이다.



<객체 탐지의 예>

딥러닝 기반의 객체 탐지 모델은 '2단계 방식'과 '단일 단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2단계 방식은 먼저 이미지에서 탐지할 객체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을 추정한 후, 그 영역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탐지하여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방식이다. 각 과정이 별도의 인공신경망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체를 판별해 내는 정확도는 높지만, 처리하는 데이터가 많고 구조가 복잡하여 탐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단일 단계 방식은 이 두 가지 과정이 하나의 인공신경망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 모델로 YOLO(You Only Look Once)가 있다.

YOLO는 이미지가 입력되면 먼저 이미지를  $S \times S$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경계 상자  $N$ 개를 표시한다. 그리고 모든 영역마다 동일하게  $N$ 개의 경계 상자를 표시하면서 각각의 경계 상자에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도 예측한다. 이때 경계 상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탐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설정할 수 있는 경계 상자의 수가 제한적인데 일반적으로  $N$ 은 5 이하로 설정한다. 각 경계 상자의 데이터는  $B_x, B_y, B_w, B_h, P_c$ 와  $C$ 로 표시되는데  $B_x, B_y$ 는 경계 상자의 중심점 좌표이며  $B_w, B_h$ 는 폭과 높이이다. 그리고  $P_c$ 는 해당 경계 상자에 어떤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이고,  $C$ 는 그 객체가 특정 객체일 확률값이다. 이때  $B_x, B_y$ 는 항상 기준이 되는 하나의 영역 안에 속해 있지만, 경계 상자의 크기는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표시된다.  $C$ 는 미리 학습된  $m$ 가지 종류의 객체 데이터와 비교하여 각 객체일 확률을 표시한 값으로,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짓수에 따라 판별할 수 있는 객체의 가짓수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C$ 의 개수도 결정된다. 하나의 이미지가 입력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영역별로 이미지에 있는 대상들을 확인하고 그 대상이 특정 객체일 확률값을 계산해서 총 ' $S \times S \times N(5+m)$ '개의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이후 경계 상자에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과 그것이 특정 객체일 확률값을 곱하여 해당 경계 상자에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인 '신뢰도 점수'를 구한다. 신뢰도 점수는 경계 상자의 위치와 객체의 판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낸다. 모든 경계 상자들은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짓수만큼 신뢰도 점수를 가지

며, 이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객체가 해당 경계 상자에서 탐지된 객체가 된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경계 상자에서 같은 종류의 객체가 탐지될 수 있다. 이때는 각 경계 상자가 하나의 대상에 중복되어 표시된 것인지, 서로 다른 대상에 표시된 것인지를 판단하여 이미지 속의 각 대상별로 가장 정확한 경계 상자 하나만 표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비최댓값 억제(NMS, Non-Max Suppression)’라고 한다. NMS는 두 경계 상자의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값인 IoU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IoU 값은 두 경계 상자의 위치가 일치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며, 이 값이 설정된 임계값보다 크면 두 경계 상자가 동일한 대상에 표시된 것으로 판단하고 둘 중 신뢰도 점수가 낮은 상자를 삭제한다. 그리고 IoU 값이 설정된 임계값보다 작으면 경계 상자가 서로 다른 대상에 표시된 것으로 판단하여 두 경계 상자 모두 그대로 둔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 가지 종류의 객체에 대해 그려진 모든 경계 상자들 중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가진 경계 상자를 기준으로 다른 경계 상자들을 하나씩 삭제해 나간다. 이후 IoU 값이 설정된 임계값보다 작아서 지워지지 않고 남겨진 경계 상자 중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가진 경계 상자를 다음 기준으로 정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다른 모든 대상에 표시된 경계 상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반복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미지 속의 각 대상별로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가진 경계 상자 하나씩만 남게 된다.

이런 원리로 인해 YOLO는 2단계 방식에 비해 탐지 속도가 매우 빨라서 자율 주행 자동차, 지능형 CCTV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대신 ㉠ 새 때와 같이 여러 물체가 한 영역 안에 모여 있는 경우 일부 대상을 탐지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10.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객체 탐지는 이미지에 있는 대상의 위치를 찾고 그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작업이다.
- ② 2단계 방식은 객체를 탐지하는 속도가 느려서 실시간 탐지에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 ③ 이미지에 표시되는 경계 상자는 기준이 되는 영역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 ④ 신뢰도 점수는 경계 상자에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을 말하며 모든 경계 상자마다 존재한다.
- ⑤ 경계 상자가 표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상에 여러 개의 경계 상자가 그려질 수도 있다.

11.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은 경계 상자의 수를 2로 설정한 YOLO 모델에 특정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데이터가 출력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단, 입력된 이미지는 단일 객체에 대한 이미지이다.

<입력 이미지>

YOLO 모델

<출력된 데이터>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

가	개
나	고양이
다	사자
라	표범
마	호랑이

	$B_x$	$B_y$	$B_w$	$B_h$	$P_c$	$C_g$	$C_n$	$C_d$	$C_r$	$C_m$
경계 상자1	0.6	0.4	1.5	1.6	0.9	0.3	0.7	0.3	0.1	0.1
경계 상자2	0.6	0.3	1.5	2	0.8	0.2	0.9	0.2	0.1	0.2

- ① 입력된 이미지에서 탐지된 객체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 ② 경계 상자 1이 경계 상자 2보다 더 정확하게 객체를 탐지하였다.
- ③ 입력된 이미지의 전체 영역에 표시되는 경계 상자는 모두 18개이다.
- ④ 입력된 이미지에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종류는 모두 다섯가지이다.
- ⑤ YOLO 모델이 이미지를 분석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는 모두 180개이다.

1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경계 상자에 대한 NMS의 수행 과정>

한 가지 종류의 객체를 기준으로 신뢰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경계 상자를 정렬함. .... ㉠

↓

최고 점수의 경계 상자를 기준으로 나머지 경계 상자와의 IoU 값을 계산함. .... ㉢

↓

계산된 IoU 값과 설정된 임계값을 비교하여 경계 상자를 삭제하거나 남겨 둠. .... ㉡

↓

남은 경계 상자 중 최고 점수의 경계 상자를 새로운 기준으로 하여 ㉠~㉡의 과정을 반복함. .... ㉣

↓

나머지 종류의 객체에 대해 ㉠~㉣의 과정을 반복함. ... ㉤

- ① ㉔의 대상이 되는 경계 상자의 신뢰도 점수는 이미지에 상관 없이 항상 일정하겠군.
- ② ㉕에서 계산된 IoU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경계 상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겠군.
- ③ ㉖의 과정에서 경계 상자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두 경계 상자가 동일한 대상에 표시된 경계 상자라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④ ㉗의 과정은 하나의 특정 대상에 중복되어 표시된 여러 개의 경계 상자가 하나만 남을 때까지 반복되겠군.
- ⑤ ㉘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경계 상자는 이전 객체의 기준이 되었던 경계 상자와 동일한 대상에 그려져 있겠군.

13. ㉗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크기에 따라 해당 경계 상자에 존재할 확률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 ② 객체에 대한 신뢰도 점수가 임곗값보다 작아 경계 상자가 제거되기 때문에
- ③ 객체를 탐지할 때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에 따라 객체를 판별하기 때문에
- ④ 객체를 탐지할 때 영역별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 ⑤ 객체를 탐지할 때 처리하는 데이터가 많고 알고리즘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의 영역인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학적 원리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연구이다.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정치학과는 다르게 다음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첫 번째 가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모든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가정에서는 집단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기체적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본다. 따라서 정치 현상은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집합적 결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을 '경제 인간'으로 본다는 가정이다. 경제 인간은 자기애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므로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다만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마지막 가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치도 본질적으로 경제시장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교환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정치는 정치시장으로, 정치인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로, 유권자는 수요자로 해석된다. 경제시장에서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한다. 정치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경제학의 관점과는 달리,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 세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 중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이 있다.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은 단일 사안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하나의 정점을 갖는 단일 선호일 경우, 경쟁하는 두 정당의 정치인들이 내

거는 공약은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에 접근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때 중위투표자란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 전체의 분포에서 한가운데에 위치한 유권자를 말한다. 이 모형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들의 분포는 종 모양의 정규분포를 가지며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 체계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의 정책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생긴다. 결국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가 아닌 소수인 중위투표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모형으로는 합리적 무지 모형이 있다.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야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에 관심이 없다. 이러한 현상을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무지 모형으로 설명한다. 합리적 무지 모형이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는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이 정보로부터 얻을 편익보다 클 경우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 무지가 발생하면 공공재와 행정서비스는 특정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인과 결탁한 이익집단에만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공공선택론자인 뷰캐넌은 사회의 이러한 비효율적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헌법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헌법정치경제학을 제시했다. 뷰캐넌은 헌법정치경제학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두 가지 수준으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헌법 제정 이후 의사결정이 입법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일상적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 정치에 대한 규칙을 결정하는 '헌법적 정치'이다. 헌법적 정치는 일상적 정치에 제약을 부과하는 헌법을 확립하는 정치 활동이고, 일상적 정치는 헌법 안에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정치 활동이다. 그는 헌법적 정치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들고 헌법 안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헌법 체계의 근본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된 헌법의 규칙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달리 ㉗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편익을 준다고 보고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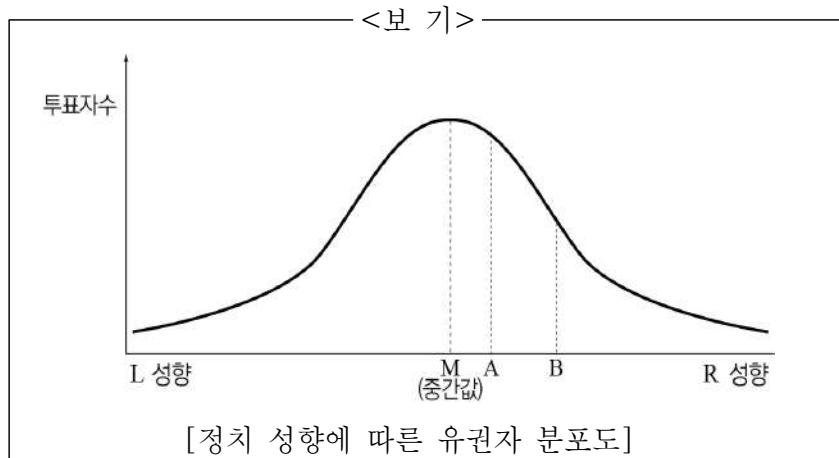
14.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공공선택론이 기존의 정치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② 공공선택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단위를 무엇으로 보는가?
-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경제시장과 정치시장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 ④ 공공선택론은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떤 이론으로 분석하는가?
- ⑤ 공공선택론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의 공약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효용은 정치인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다.
- ② 정치시장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 ③ 의사결정의 주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 ④ 정치인은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보다 특정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편익을 제공하는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다.
- ⑤ 유권자는 정치인의 정책 공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비용이 이에 대한 이익보다 크면 정책 공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다.

16. [A]를 적용하여 <보기>의 상황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두 정당의 정치인 갑과 을이 단일 사안에 대해 경쟁하는 다수결 원칙의 선거 상황에서 갑은 정치 성향이 중간인 M의 입장에서, 을은 R 성향인 B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하였다.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단일한 정점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

- ① 정치 성향이 M의 왼쪽에 있는 L 성향의 유권자들은 모두 갑에게 투표할 것이다.
- ② 정치 성향이 중간인 M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한 갑이 을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③ 정치 성향이 A인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R 성향의 정책을 제시한 을에게 투표할 것이다.
- ④ 정치 성향이 B의 오른쪽에 있는 R 성향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을에게 투표할 것이다.
- ⑤ 을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을 수정한다면 을은 갑이 제시한 정책과 유사한 정치 성향을 띤 공약을 내세우려 할 것이다.

17. 뷰캐년이 ㉠처럼 생각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개인의 활동을 규정하고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 ②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헌법적 정치를 통해 입법적 수준에서 헌법의 규칙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헌법적 정치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규칙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 ④ 의사결정 참여자들은 일상적 정치를 하는 과정보다 헌법적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쉽기 때문에
- ⑤ 일상적 정치보다 헌법적 정치를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의 대안에 합의하는 것이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운은 학녹을 데리고 광주로 향하여 가다가 운승지 덕이 야간도주(夜間逃走)하였다는 말을 듣고 놀라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분명히 태후 유정만의 해를 입었구나!” 하였다.

계속해서 중원을 향하여 가다가 계량 월낙점이라 하는 주점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그 주점 사람이 모두 탄식하며 말하기를, “세상 천하에 불쌍한 사람도 많도다!” 하거늘 성운이 이상히 여겨 묻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불쌍한가?” 하니, 그 주점 사람이 말하기를, “황도에 진상서라 하는 사람이 강남으로 귀양 갔는데, 진[A] 상서는 귀양지에서 죽고 그 아들이 성묘 갔다가 불들리어 황도로 올라갔다.” 라고 하였다.

성운이 그 말을 듣고 대경질색(大驚窒塞)하여 물었다. “언제쯤 이곳으로 지나갔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 날 저물 때에 이곳으로 지나갔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성운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야겠다 싶어 학녹을 데리고 급히 쫓아갔다. 일주일을 쫓아 용주 경수 물가에 이르렀다. 이때에 강남골 하인이 성운에게, 하인들이 진상서의 아들을 결박하여 가지고 방금 물을 건너갔다고 알려 주었다. 성운이 급히 쫓아가 붙들고 보니, 결박된 사람이 누이인 성희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정말로 성희인 줄은 알지 못하고 우선 마음이 편치 않아 급히 달려들어 결박한 것을 풀어 주었다.

그 하인이 호령하며, “어떤 놈이기에 나라 죄인을 임의대로 풀어놓느냐?” 하면서 성운을 치려고 하자, 성운이 분개하여 칼을 빼 들고 그 하인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

성운이 진소저 앞에 나아가니, 진소저와 연향은 정신이 아득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다가 정신을 겨우 차렸다. 진소저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 어릴 적 성운의 얼굴이 자라서도 명백하였다. 소저가 놀라 성운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성운이냐, 아니냐? 내가 네 누이라! 네 어이 나를 찾아오며 네 어이 나를 모르느냐?” 하였다.

성운 또한 그 말을 듣고 연달아 방성통곡하며 말하기를, “누님아, 누님아! 어떤 일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또 멀고 먼 강남 길에 어찌 살아 오셨는가?”

실과 같은 목숨이 하늘에 도달하여 둘이 무수히 통곡하는데, 연향이 또한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성운의 소매를 잡고 슬피 통곡하니, 산천과 초목이 함께 슬퍼하는 듯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연나라가 침입하자, 황제에게 군사를 받은 유경만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다. 진성운은 학녹과 전쟁에 참가하고, 순경과 호원도 함께 연나라에 맞서 싸운다.

그날 밤 백구십 리를 달려 상산 땅에 다다르니,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 왔다. 성운과 순경이 백마산에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니, 연나라 군사가 평원광야에 빈 데 없이 가득하였다. 성운이 순경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서편으로 쳐들어가면 나는 동편으로 쳐들어가리라.” 하고는 말을 달려 적진 중에 들어가 적진 장졸을 헤치고 삼만여 겹 포위망 속으로 들어갔다.

이때 호원은 창을 들고 오는 창검을 막고 섰는데, 동편으로 뇌성벽력(雷聲霹靂) 같은 소리가 나더니 기치(旗幟)와 창검이 일시에 쓰러지고 제장과 군졸이 사면으로 분주하여 서로 밟혀 죽으며, 군마(軍馬)의 시끄러운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문득 일원대장이 장창을 비껴들고 나타났다. 호원이 황망 중에 살펴보니 수기(手旗)에 글이 쓰였으며 ‘대장군 대원수 진성운’이라 하였다. 호원이 깜짝 놀라며 반겨 외쳤다.

“호원을 살려 주소서.” 하니, 성운이 즉시 호원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문득 서편으로 풍진이 일어나더니 기치창검(旗幟槍劍)이 또 일시에 쓰러지며 일원대장이 들어왔다. 호원이 또 살펴보니 이는 순경이었다. 더욱 반가워하며,

“어찌 그리 더디 오는가?”

하였다. 성운과 순경이 장수 삼만여 겹을 헤치고 나와 백마산 위에 호원을 두고 다시 내려왔다. 성운과 순경이 말을 재촉하여 적진 중에 다시 들어 동서로 마구 치니, 순식간에 사백만 군졸을 거의 모두 죽였다. 월성덕이 장대(將臺)에서 보다가 망천탄식(望天歎息)해 말하기를,

“삼백만 군졸을 하루아침에 함몰(陷沒)시키고 무슨 면목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칼을 들어 자결했다.

이에 공손걸과 유경만이 갈 바를 모르고 앉아 탄식하는데, 이때 성운과 순경이 장대에 올라 공손걸의 머리를 베어서는 깃대에 달고 군중을 호령하니, 남은 장수들이 흩어져 있는 군사를 거두어 와서 항복하였다. 성운이 다 죽이지 아니하고 예로 대접하니, 모든 적장과 군졸이 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

성운이 또한 유경만을 잡아다가 앞에 꿇리고 죄를 낱낱이 말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긴 놈으로 간사하게 천자에게 참소(讒訴)하여 내 부친을 무슨 탓으로 강남에 귀양 보내어 죽게 하였는가? 원수를 만분지일이라도 갚아야겠다.”

라고 하였다.

- 작자 미상, 「진성운전」 -

1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②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인물이 지닌 초월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1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성운은 윤승지 덕의 불행이 유경만 때문이라고 확신하였다.
- ② 주점 사람은 중원으로 향하던 진성운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 ③ 강남골 하인은 진성운을 보고 진상서의 아들임을 알아보았다.
- ④ 호원은 순경이 적진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 ⑤ 월성덕은 연나라 군대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진성운전」은 진성운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진성운은 어린 시절 가족과의 이산, 기아 등의 고난을 겪지만, 능력을 길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원수이자 나라를 배신한 적대자를 징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주인공 외에 여러 영웅이 등장한다. 이들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데, 위협에 처하면 서로 도우며 국난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

- ① 진성운과 순경이 연나라 군사를 함몰시키는 것을 보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들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진성운과 성희가 서로를 확인하며 통곡하는 것을 보니, 진성운이 어릴 때 가족 이산의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진성운이 적들의 항복을 받고 유경만을 잡아 죄를 물은 것을 보니, 국난을 극복하면서 개인적인 원한도 갚게 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④ 유경만이 연나라의 패배를 탄식하는 것을 보니, 진성운의 적대자인 유경만은 진상서를 참소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적진에 둘러싸인 호원이 진성운에게 살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영웅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2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성운이 위협에 처한 누이를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② 연향이 숨겨둔 흔적을 진성운이 찾게 되는 이유가 된다.
- ③ 학녹이 진성운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동기가 된다.
- ④ 떠돌던 진성운이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된다.
- ⑤ 누이가 강남에서 겪은 일을 진성운이 재확인한 단서가 된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강(淸江) 녹초변(綠草邊)의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비껴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제 집을 버리고  
 반공(半空)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赤壁)\*은 가을 칠월(秋七月)이 좋다 하되  
 팔월 보름달을 모두 어찌 칭찬하는고  
 고운 구름 흩어지고 물결이 잔잔할 때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적선(謫仙)이 야단스럽구나  
 공산(空山)에 쌓인 잎을 삭풍(朔風)이 거둬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天空)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萬樹) 천림(千林)을 꾸며 내는구나  
 앞 여울 가려 얼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가는 건가  
 산옹(山翁)의 이 ㉠ 부귀(富貴)를 남에게 전하지 마오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隱世界)를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찻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A]

[B]

[C]

[D]

[E]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

- \* 소선 적벽: 송나라 문인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
- \* 한기: 책.
- \*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 \* 기산의 ~ 찻었던가: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제안받을 때, 이를 거절하면서 그 말을 들은 자신의 귀를 찻었다는 고사.
- \* 박 소리 핑계하고: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면서 허유가 핑계하고.
- \* 조장: 기개 있는 품행.

(나)

㉡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마라  
 인생 백 년(百年)이 한가(閑暇)할사 이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마라 너와 망기(忘機)\*하오리라

<제1곡>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깃배 떴단 말가  
 죽간(竹竿)을 둘러메고 십 리 장사(十里長沙) 내려가니  
 연화(煙花) 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곡>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 \*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다)

윤상군이 처음에 곤강 남쪽에 집터를 마련했다. 집터 동편과 서편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였으므로 거기에다가 정자를 짓고 **울정(栗亭)**이라고 이름했다. 그 후에 또 조금 서편으로 가서 새로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했다. 성안에 있는 집에서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적은데, 윤공은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 있는 곳을 선택했다.

그는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봄에는 잎이 무성하지 않아 가지 사이가 성글어서 그 사이로 꽃이 서로 비치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늘에서 놀 수가 있으며, 가을에는 밤이 먹을 만하며, 겨울이면 밤송이를 모아 아궁이에 불을 댈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밤나무를 좋아한다.”

나는 말한다. 불이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이니 이치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대개 그 숭상하는 것이 같으면 물건이나 내가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는 풀이나 나무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어려운 것, 쉬운 것, 일찍 되는 것, 늦게 되는 것 등 가지각색인데, 오직 이 밤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서 가장 늦게 나며, 재배하기도 어렵고 기르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자라기만 하면 쉽게 튼튼해지며, 잎이 매우 늦게 돋지만, 돋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준다. 꽃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흐드러지며, 열매가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곧 수확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밤나무는 모든 사물에 공통되는 차고 이지러지고 줄어들고 보태는 이치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윤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여 세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가 늦었다고 하였으나, 공은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했다. 그러다가 임금의 인정을 받아 등용되었는데,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밤나무와 같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쉬웠으니, 이것은 밤나무의 꽃과 열매의 성질과 같은 바가 있다.

나는 그것을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대개 식물의 씨앗이 흙에서 싹틀 때 깊으면 싹이 더디 터진다. 꼬투리가 터지면 곧 눈이 트고, 눈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룬다. 샘물이 웅덩이에 차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된다. 그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면 물이 고이고, 고이면 못이 되었다가 반드시 바다에까지 도달한다. 그러므로 그 느린 것은 장차 빨리 되려는 것이요, 멈추는 것은 장차 끝까지 도달하려는 것이니, 곧 모자란 것은 채울 수 있으며 부족한 것은 보탬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을 숭상하면 불을 닦고 물을 숭상하면 물을 닦으니 나와 숭상하는 사물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그대가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은 밤나무의 성장함과 같으며, 밤을 수확하여 간직함은 그대의 은퇴하는 것과 같다. 그 성장함에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바가 있으며, 그 간직함에는 자신의 양생의 작용이 있다. 이에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글을 짓는다.

- 백문보, 「울정설(栗亭說)」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특성을 포착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소 먹이는 아이들'의 피리 소리를 듣고 '용'과 '학'을 떠올리며 강변에서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 ② [B]: '팔월 보름달'을 '소선 적벽'의 내용과 비교하며 달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천공'이 '옥'으로 꽃을 만들어 '만수 천림'을 꾸민 것 같다고 표현하며 눈 내린 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④ [D]: '늪은 중'이 가 버린 것에 아쉬워하며 '은세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 ⑤ [E]: '성현'과 '호걸'을 생각하며 '시운'이 '일락배락'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2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과거를 극복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은 ㉠과 달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대상이다.
- ③ ㉠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은 갈등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25. 다음은 (다)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활동 과제: '나'가 말한 내용이 윤상군의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가 말한 내용		활동 결과
불이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	⇒	㉠
밤나무는 늦게 나고, 기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	㉡
잎이 매우 늦게 돋지만, 돋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	⇒	㉢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가는 것.	⇒	㉣
밤나무의 성장함과 밤을 수확하여 간직하는 것.	⇒	㉤

- ① ㉠: 윤상군이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한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② ㉡: 윤상군이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간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③ ㉢: 늦게 벼슬에 오르기까지 윤상군이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임했다는 것에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④ ㉣: 등용된 윤상군이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⑤ ㉤: 윤상군이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과 은퇴하는 것에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가는 화자나 인물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곧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화자나 인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 ① (가)에서 고사를 인용하며 '늪은 고불'을 '조장'이 높은 인물로 보고 있는 화자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에서 세상의 일이 '구름'처럼 험하다면서 '술'로 '시름'을 잊겠다고 말하는 화자를 통해 속세를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에서 '백구'에게 날지 말라고 말하며 함께 '망기'하고 싶다는 화자를 통해 자연물을 물아일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삶의 터전인 '어촌'을 '무릉'에 비유하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를 통해 일상의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다)에서 정자의 이름을 '율정'이라 짓고 늘 자신의 행동을 경계하였음에도 등용이 늦었던 인물을 통해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門)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었다.  
그 흰출한 줄기마다  
맺방석만한 꽃송어리가 돌고

해바라기 ㉠ 숲 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낮닭이  
깃을 치며 울었다.

파아란 바다가 보이는  
산모퉁잇길로  
꽃상여가 하나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바다 위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오색(五色) 비단으로 돛폭을 달고  
뱃머리에는 큰 북이 달려 있었다.

수염 흰 노인이 한 분  
그 뱃전에 기대어  
피리를 불었다.

꽃상여는 작은 배에 실렸다.  
그 배가 떠나자  
바다 위에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 조지훈, 「꿈 이야기」 -

(나)

누이여  
또다시 은비늘 더미를 일으켜세우며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  
이과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뺨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 별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  
이슬 턴 풀잎새로 엉경퀴 바늘을  
살라주었다

봄은 살아 있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라  
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나리 나리 개나리  
내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찬물로 눈을 행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 기형도, 「나리 나리 개나리」 -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나)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대화체의 형식을 통해, (나)는 대조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나)는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화자의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28.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과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가 꺾였다는 것은 누이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살아 있는 나’가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에 아파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부르지 않아도’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④ ‘봄’이 되자 ‘또다시’ ‘꽃술’이 펴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는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2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련에 맞서는 공간이고, ㉡은 희망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바라보는 공간이다.
- ③ ㉠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의 기대가 반영된 공간이고, ㉡은 화자의 심리와 대조되는 공간이다.
- ⑤ ㉠은 미래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과거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죽음은 실제적 아픔의 원인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가)는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꿈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 밖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문’을 경계로 하여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나오면서도 ‘문’을 ‘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 산모퉁이길’을 거쳐 바다로 가므로 ‘산모퉁이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누이에 대한 ‘투명한 /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에게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은 화자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화자가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들을 거느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호랑이 사건 이후부터 윤봉이에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연설 흥내만이 아니라 군가를 부르는 데도 그 특이한 재주를 발휘하여 잠깐 사이에 우리 마을의 명물로 등장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어디를 가나 윤봉이의 인기가 대단한 것에 가족들인 우리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주 내놓은 바보로 이제까지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우리 윤봉이를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마을 정자마당에 들르는 것이었고 길을 가다가도 꼭꼭 불러 세우곤 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이처럼 엄청난 인기에 값할 만큼 윤봉이의 재간이 하루아침에 눈부시게 급성장해 버린 건 아니었다. 발음은 여전히 어눌했고, 중간중간을 잘 까먹어 수없이 더듬거렸다. 더구나 노래 도중에 헛뜨게 흘리는 멀건 웃음과 굵뚱 몸놀림은 그가 여전히 **어찌지 못할 바보의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극성이 윤봉이의 꿈무늬에 줄줄 매달려 다닌다는 건 대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다. 결국 그 점에 관해선 아버지의 견해가 옳은지도 몰랐다. 윤봉이가 근심될 때마다 아버지는 꿈을 이야기했다. 본디 우매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에 거는 기대는 늘 최저의 수준에서 시작되었다. 훈련에 의해 그 최저의 수준을 한치라도 넘어서는 행동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한 재주로 여기고 곡마단의 꿈에게 박수를 보내게 된다. 윤봉이는 **한 마리의 꿈**이었다. 꿈이 되어가는 윤봉

이를 슬퍼하는 사람은 아버지 혼자였다. 아버지는 슬픔을 넘어 분개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극성 뒤에 감추어진 불순한 저의를 개탄하고 있었다. 철부지 어린애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기네들이 인민군을 환영하고 공산당에 적극 동조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 데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가진 남 모를 괴로움은 어머니에 의해 번번이 무시당하곤 했다. 마침 잘된 일이지 뭐유, 하면서 오히려 어머니는 윤봉이를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고민을 알 리 없는 윤봉이는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를 먹으며 마냥 신명이 났다. 인민학교가 끝나면 나는 항상 윤봉이 손을 잡고 마을 정자마당으로 향했다. 나 어린 인민군 병사의 지휘에 맞추어 우리는 여류한철을 매미처럼 내내 노래만 부르며 보냈다. 그리고 그 소년병이 숙련된 조련사처럼 우리 윤봉이를 맹훈련시키는 걸 곁에서 성의껏 도우면서 나는 보람을 느꼈다.

(중략)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그애한테 이해시키기란 참말이지 장대로 보름달을 따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 녀석은 저를 그토록 귀애해 주던 나 어린 인민군 병사가 왜 갑자기 떠나버렸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 노래에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어 바보 윤봉이로 통하던 당시처럼 다시 거들떠도 안 보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전연 몰랐다. 하기가 녀석 입장에서 본다면 구태여 그걸 알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노릇이었다. 녀석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죽음기관이 돌아가고 있었다. 마음이 내킬 때마다 그걸 틀기만 하면 되었다. 그걸 틀고만 있으면 빛나던 시절 화려한 기억이 저한테서 떠나지 않고 머무는 줄로 알았다. 딱한 일이긴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병이려니 생각하고 크게 신경들을 안 썼다. 다만, 인제는 내놓을 만한 게 못 되는 그 버릇이 아무데서나 불쑥 튀어나올까봐 되도록 집 안에서만 놀도록 배려를 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예상이 자꾸만 빛나감을 느끼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달래도 보고 혼뜨검도 내보았지만 다야 소용없는 것이었다. 녀석은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동할 때마다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인민군가를 기운차게 부르는 것이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소리였다. 뻘 한 대 얻어맞은 과거를 찌르면 등쪽까지 꿰뚫리는 죽창으로 양갈음하는 세상이었다. 비단 인공 치하에서 거의 씨를 말리다시피 된 곰배정씨네뿐만이 아니라 여차하면 당장에라도 쫓아올 성실은 사람이 마을 안에 여럿 있었다. 그들 앞에서 눈곱만치라도 공산당에 관계된 흔적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마을 사람 누구나 혀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듯 하는 판국이였다.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어머니 연배의 마을 아낙네들도 한두 번 윤봉이의 연설 흥내와 군가를 들은 뒤로는 녀석과 마주치는 걸 꺼리는 눈치가 완연해졌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그네들은 어머니한테 넌지시 충고까지 하는 것이었다.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누가 듣겠다 싶으면 어머니는 윤봉이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수단을 다 해 봐도 녀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말리면 말릴수록 더욱더 기를 써가며 이미 물거품이 돼 버린 지난날의 명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었다. 난생처음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던 날의 **찬란한 기억**을 몰아내고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 줄 적당한 선물이 우리에게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접속 조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이다. 접속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며, 이때 나열된 단어나 구들이 하나의 명사구가 되어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한다.

접속 조사에는 ‘와/과, (이)랑, (이)며, 하고’ 등이 있다. 이 중 ‘와/과, (이)랑, (이)며’는 ‘봄에 개나리와 철쭉꽃과 진달래가 핀다.’에서처럼 결합하는 체언의 음운 환경에 따라 바뀌어 나타난다. 즉,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면 ‘와, [A] 랑, 며’가 쓰이고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면 ‘과, 이랑, 이며’가 쓰인다. ‘(이)랑, 하고’는 체언이 나열될 때 마지막 체언에까지 결합할 수 있어서 ‘삼촌하고 이모하고 다 직장에 갔어요.’와 같이 쓰일 수 있다. 그런데 부사격 조사에도 ‘와/과’가 있기 때문에 접속 조사 ‘와/과’와 구분해야 한다. ‘나는 꽃과 나무를 사랑한다.’에서 접속 조사 ‘과’가 쓰인 ‘꽃과’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이와 달리 ‘나는 누나와 눈이 닮았다.’에서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 ‘누나와’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로, 생략할 수 없다.

중세 국어에서도 접속 조사는 현대 국어의 접속 조사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 접속 조사에는 ‘와/과, 하고, (이)며, (이)여’ 등이 있는데 ‘와/과’의 결합 양상은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ㄱ. 나모와 곳과 果實와는 [나무와 꽃과 과실은]

ㄴ처럼 중세 국어에서 ‘와’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고 ‘과’는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한다. ㄱ의 ‘果實와’에서처럼 ‘와/과’는 마지막 체언에까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마지막 체언과 결합한 ‘와/과’ 뒤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며, (이)여’는 ‘열거’의 방식으로, ‘하고’는 ‘첨가’의 방식으로 접속의 기능을 나타내었다.

35. [A]를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시와 음악을 좋아한다.’에서 ‘시와 음악’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이다.
  - ② ‘네가 머루와 먹을 가져오너라.’에서 ‘머루와’를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된다.
  - ③ ‘친구랑 나랑 함께 꽃밭을 만들었다.’에서 ‘랑’은 체언들을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 ④ ‘가방과 신발을 샀다.’에서 ‘과’는 부사격 조사로서 ‘가방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된다.
  - ⑤ ‘수박하고 참외하고 먹자.’와 같이 ‘하고’는 결합하는 체언의 끝 음절의 음운 환경이 달라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옷과 뵤와로 佛像을 꾸미스바도  
[옷과 베로 불상을 꾸미었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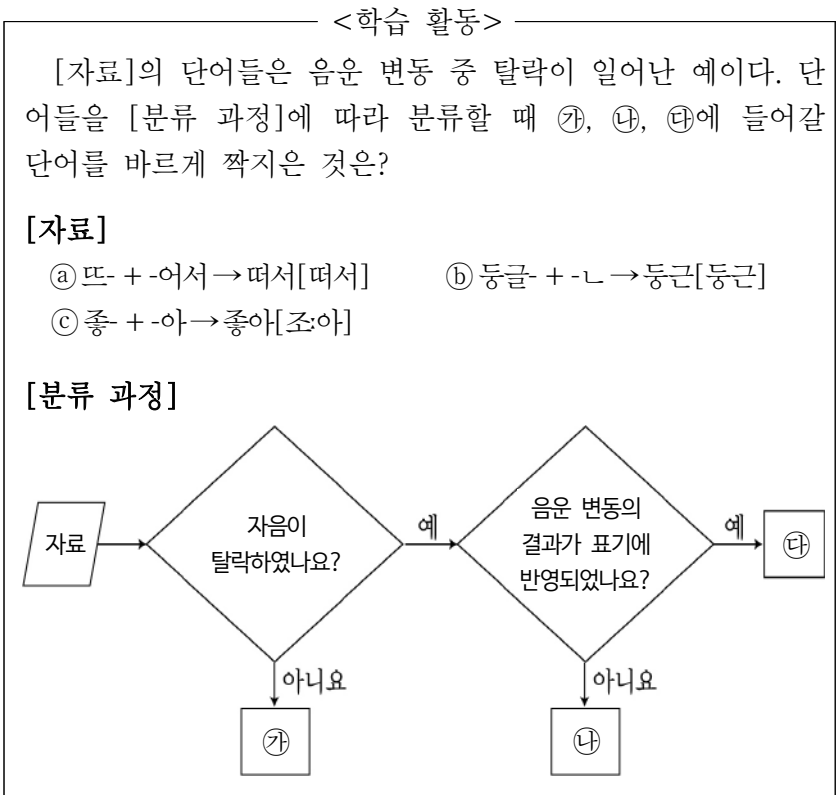
㉡ 子息이며 좋이며 집안 사르물 다 眷屬이라 흐느니라  
[자식이며 좋으며 집안의 사람을 다 권속이라 하느니라]

㉢ 밤과 낮과 法을 니르시니  
[밤과 낮에 법을 이르시니]

㉣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도흐며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 ① ㉠에서 ‘옷과 뵤와’는 접속 조사에 의해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고 있군.
- ② ㉡에서 ‘이며’는 열거의 방식으로 ‘子息’과 ‘좋’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③ ㉢를 보니, 접속되는 마지막 체언에 ‘와/과’가 결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과 ㉣를 보니, ‘와/과’ 뒤에 격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와 ㉣를 보니,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은 ‘과’와,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은 ‘와’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 |
| ① | a | c | b |
| ② | a | b | c |
| ③ | c | a | b |
| ④ | c | b | a |
| ⑤ | b | a | c |

38.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탐구 과제] 직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이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으로 바뀌었을 때의 높임 표현, 지시 표현, 인용 조사 등의 변화 탐구하기

[탐구 자료]

직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그가 어제 나에게 “내일 서울에 갑니다.”라고 말했다.	⇒	그가 어제 나에게 오늘 서울에 간다고 말했다. ... ㉠
희수가 민주에게 “힘든 일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했다.	⇒	희수가 민주에게 힘든 일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 ㉡
부산에 간 친구가 나에게 “이곳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말했다.	⇒	부산에 간 친구가 나에게 그곳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 ㉢

- ① ㉠: ‘오늘’을 보니, 직접 인용절의 시간 부사가 간접 인용절에서는 바뀌어 나타났군.
- ② ㉠: ‘간다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에서 ‘그’가 ‘나’를 고려해 사용한 높임 표현이 간접 인용절에서는 바뀌어 나타나는군.
- ③ ㉡: ‘맡기라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이 명령문일 때 간접 인용절의 인용 조사는 ‘고’가 사용되었군.
- ④ ㉢: ‘그곳이’를 보니, 직접 인용절의 발화자인 ‘친구’의 관점으로 지시 표현이 바뀌어 나타나는군.
- ⑤ ㉢: ‘아름답다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의 감탄형 종결 어미는 간접 인용절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로 바뀌어 나타났군.

39.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는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구성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지혜: 쉬고 있는 걸 보니 안무를 다 ㉠ 짚나 본데?

세희: 아니야, 잠시 쉬고 있어. 춤이 어려워서 친구들이 공연 중에 동작을 ㉡ 잇을까 싶어 걱정이야.

지혜: 그렇구나. 동작은 너무 멋있던데?

세희: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구성까지 어려우니까 몇몇 친구들은 그만 ㉢ 포기해 버리더라고.

지혜: 그럼 내가 내일 좀 ㉣ 고쳐 줄까?

세희: 괜찮아. 고맙지만, 오늘까지 ㉤ 마쳐야 해.

학생: [A]

- ① ㉠에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에 대해 추측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 ② ㉡에는 화자가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③ ㉢에는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화자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 ④ ㉣에는 화자가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베푸는 심리적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⑤ ㉤에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0~43] (가)는 도서관에서 주관한 실시간 인터넷 강연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다매체 시대, 듣기는 또 하나의 독서’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할 △△학회의 이□□입니다. 강연에 앞서 독서 실태에 대한 간단한 설문을 하나 해 볼게요. 지금 보내 드리는 ㉠ 링크를 누르시면 답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 화면을 가리키며) 자, 결과가 나왔네요. 한 달 평균 3시간 이내로 독서한다고 답하신 분들이 많군요.

최근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은 ㉡ 지난 10년 사이에 약 20%나 감소했습니다. 여러분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채팅창의 답변을 확인하며)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정보를 얻는 전통적 방식인 종이책은 읽는 데에 오랜 시간과 강한 몰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을 읽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 독서가 정보 습득의 중요한 수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휴대성 및 편의성을 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에만 활용하지 말고, 독서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최근 발표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일상 속의 독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한 독서 방식으로 자리 잡기도 했죠.

아, 방금 채팅창에 ‘너무 바빠요’라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보면, 성인의 독서 저해 요인 중 ‘시간이 없어서’가 두 번째로 높아요. ㉣ 그래서 제가 기존의 종이책이나 전자책 이외에 다른 독서 방식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디오북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우리는 주로 활자를 보고 읽으면서 독서를 하지만, 이는 소리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신경과학자들은 단어를 읽거나 듣거나 상관없이 ㉤ 뇌의 인지와 감정 영역이 모두 유사하게 자극된다고 말합니다.

오디오북은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한 독서 방식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책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자투리 시간도 독서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앱에서도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출근길이나 산책 중에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독서가 가능한 것이죠. 휴식 시간이나 잠자리에서 편안히 이야기를 즐길 수도 있어요. 또한 오디오북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독서 동기를 높여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종이책과는 다르게 훼손 위험이 낮고 손쉽게 저장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휴대하기 쉽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장시간 청취 시 청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라든지, 불법 복제로 인한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

그룹채팅 5

[ '동욱' 님이 '다정', '수예', '해찬', '형준' 님을 초대하였습니다. ]

애들아, 이번에 들은 인터넷 강연 내용을 학술제 때 발표하기로 했잖아. 만나기 어려우니 우리 발표 자료에 대한 회의는 여기서 할까?

다정: 맞아, 우리 너무 바빠. ㅎㅎ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수예** 지난 번 회의에서 오디오북을 소개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도와주자고 했었지? 일단 종이책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면 어떨까?

**해찬** 독서율이 감소한 것은 다 아니까 그보다는 [슬라이드 1]에 독서 저해 요인을 그래프로 제시하여 한눈에 보여 주자.

**수예** 알겠어. 그런데 강연자님은 성인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셨는데 발표를 들을 대상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니 학생에 대한 통계도 함께 제시하면 어떨까? 내가 찾은 자료인데 한번 볼래?

**수예** 사진 파일 전송: 독서 저해 요인 분석 그래프(학생).jpg

**동욱** 와, 훌륭하네!^^ 그럼 [슬라이드 2]에서는 스마트폰이 독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전달하자. 이런 내용을 문구로 만들고, 효과음도 넣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때?

**형준** 그러자. 그리고 [슬라이드 3]에는 오디오북의 장점을 제시하자. 화면을 분할해서 장점을 항목화하여 표현해 볼까?

**다정** 멋진 생각이야. 그런데 오디오북이 독서 동기를 유발한다는 강연 내용은 정확한 근거를 보여 줘야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아. 오디오북 독자의 39%가 종이책이나 전자책 독서량도 늘었다는 자료를 찾았거든.

**해찬**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슬라이드 4]에는 강연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서 보여 주자. 화면 아래에는 자막을 넣어 강연 내용도 정리해 주고.

**형준**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5]에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가 담긴 도서를 제공하는 오디오북 플랫폼을 소개할까? 이걸 내가 골라서 정리해 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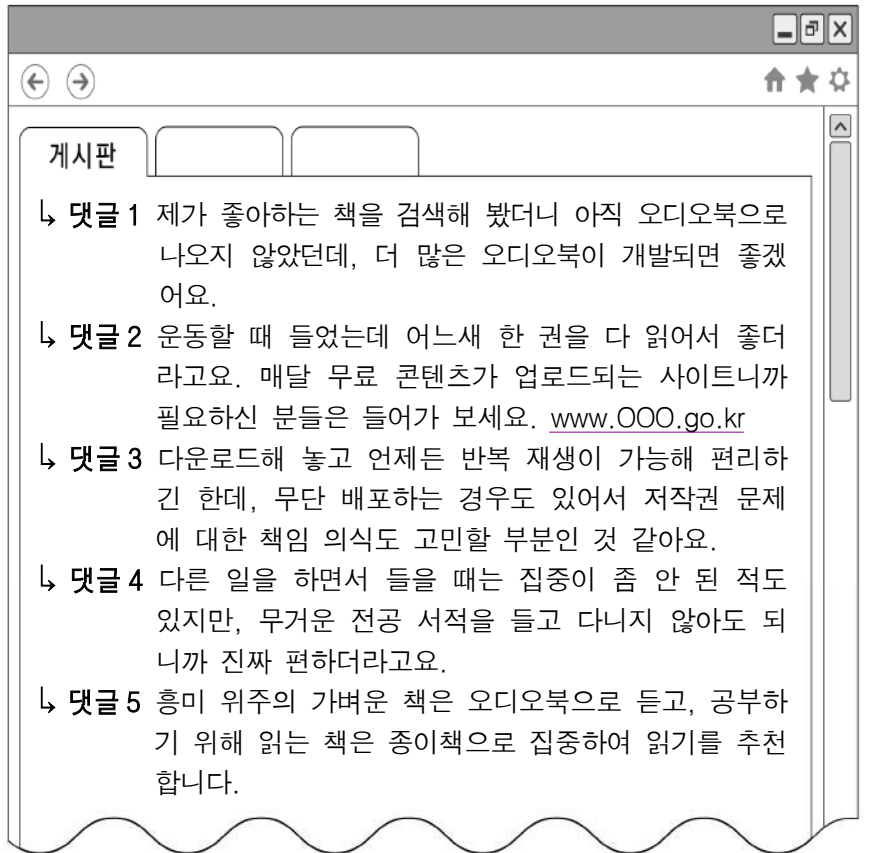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정보 생산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용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수용자가 또 다른 정보 생산자가 되어 정보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특수 문자와 한글의 자음자로 된 기호를 사용하여 정보 생산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 짓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연결 어미 '-면'을 활용하여 앞 절의 내용이 '답'을 할 수 있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보조사 '나'를 활용하여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의 감소 정도가 크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관용 표현 '두말할 나위가 없다'를 활용하여 독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접속 부사 '그래서'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 ⑤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뇌의 인지와 감정 영역'이 행위의 주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42. 다음은 오디오북 앱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가)를 들은 후 도서관 게시판에 단 댓글이다. 댓글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 1은 오디오북 앱을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을 언급하며 더 많은 오디오북이 제작되기를 바라고 있군.
- ② 댓글 2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내용에 공감하며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댓글 3은 오디오북이 지닌 편의성이 초래할 수도 있는 윤리적 문제를 떠올리고 있군.
- ④ 댓글 4는 오디오북이 지닌 휴대성이 일상 속 독서 접근 기회를 높인다는 강연자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⑤ 댓글 5는 독서의 목적에 따라 오디오북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군.

43.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수예'는 발표의 목적과 청중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1]에 강연을 통해 얻은 정보와 함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
- ② '동욱'은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슬라이드 2]에서 전달 내용을 문구로 제시할 때 음향 효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 ③ '다정'은 발표 자료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3]에 오디오북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다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④ '해찬'은 발표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슬라이드 4]를 문자와 영상을 결합한 복합 양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⑤ '형준'은 발표 자료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5]를 자신이 선별한 정보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44~45] (가)는 OO고등학교 학생회 블로그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회가 제작한 앱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을 담다!**  
 OO고등학교 학생회 2022. 7. 00. 08:30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회에서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을 담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학생회는 우리 학교 숲의 사진과 텃밭의 탐구 자료를 정리하여 '생태 환경 자료집'을 e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숲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100여 가지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숲을 거닐면서 꽃과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찍어 놓으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그 사진들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학생회에서도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모아 숲의 세계절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사진을 모아 이와 같은 영상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숲의 세계절 영상]**

**[숲 사진을 올리려면 여기를 클릭!]**

우리 학교에는 식물의 성장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텃밭도 있습니다. 텃밭에는 10여 가지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 식물들에 대해 탐구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번 자료집에는 텃밭의 식물들을 탐구한 자료들도 함께 실고자 합니다. 과학 동아리에서 작성한 식물 관찰 일지를 첨부하니 이 예시를 참고하여 자료를 작성해서 업로드해 주세요.

식물 관찰 일지.pdf

숲 사진과 텃밭 탐구 자료를 많이 업로드해 주실수록 자료집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텃밭 자료를 올리려면 여기를 클릭!]**

여러분! 이 프로젝트에 공감하신다면 '공감하기'를 눌러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댓글 52 | 공감하기 102

김OO: 블로그 자료들을 모은 우리 학교 숲과 텃밭에 대한 기록을 앱으로 만들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 학생회장: 좋은 생각이네요. 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우리 학교 프로젝트**

- 학교 숲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학교 텃밭
  - 1학년
  - 2학년
  - 3학년
- 묻고 답하기
  - ▶ 들어가기

4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 내용에 반응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 ② 프로젝트의 결과를 요약한 파일을 첨부하여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③ 학교 숲 사진으로 만든 동영상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자료를 올리려는 학생들이 해당 게시판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⑤ '공감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45. <보기>는 학생회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앱이다. 회의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OO고등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간의 기록!**

- 학교 숲 '사진'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학교 텃밭 '탐구 자료'
  - 꽃 식물
  - 쌍떡잎 식물
  - 외떡잎 식물
- 자료 더하기
  - 숲 사진
  - 식물 관찰 일지

- ① 프로젝트의 제목을 반영하여 앱의 제목을 바꾸고, 학교 이름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② 항목별로 모은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여 알려 주고, 구분되어 있지 않던 항목도 '학교 숲'과 '학교 텃밭' 항목으로 나누자.
- ③ '학교 텃밭' 항목의 메뉴를 나누는 기준을 학년에서 식물의 종류로 바꾸어 탐구 자료를 식물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
- ④ '학교 숲' 항목은 사진을 연도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계절별로 확인할 수 있게 메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⑤ '묻고 답하기' 항목을 '자료 더하기' 항목으로 바꾸어 숲 사진과 식물 관찰 일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자.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